

# 인문대 소식



발행처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장전동)  
발행일 2018년 3월 전화 051-510-1501  
발행인 조강희 편집인 이선진  
디자인/제작 부산대학교출판부 전화 051-510-1932

## 학사 일정

2018. 3. 2(금) 19(월)~23(금) 23(금) 23(목)~4. 4(수)	2018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1학기 개강 학위청구자격 종합시험 학위청구자격 외국어시험 2018학년도 1학기 수강취소(W)
2018. 4. 10(화) 16(월)~21(토)	2017학년도 후기 학위청구 심사용 논문제출 2018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2018. 5. 15(화) 18(금)~21(월)	개교기념일 2018학년도 여름계절수업 수강신청
2018. 6. 16(토)~22(금) 23(토)	2018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2018학년도 여름계절수업
2018. 7. 5(목) 10(화)~23(월) 3(금)~6(월)	2017학년도 후기 학위논문 심사결과보고서 및 최종논문 제출 2018학년도 2학기 국·영문 교수계획표 입력 2018학년도 2학기 희망과목담기
2018. 8. 24(금)	2017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 Contents

02 | 미리내 단상 · 교수동정 03 | 교수동정 · 인문대 소식 04 | 학과 · 연구소 소식 07 | 학과 · 연구소 소식 · 신간소개

### 인문대학 교수연찬회 개최

2018년 1월 9일 인문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4차 산업혁명과 인문대학의 미래”를 주제로 전체교수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조강희 학장의 “제4차 산업혁명 대비 일본의 학사제도 개편”에 대한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3개 분과로 나누어 일본대학의 우수한 사례와 규슈대학의 연구 교육 분리에 대한 장단점 등에 대하여 학문분야별로 자유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 후에는 불어불문학과 박형섭 교수의 색소폰 연주와 더불어 학과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 인문학 최고과정 제3기 수료식

부울경 지역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인문학적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대학에서 개설한 인문학 최고과정 제3기의 수료식을 2017년 12월 6일 상남국제회관에서 거행하였다. 수료식에는 부산대학교총장(교무처장 대독)의 축사와 조강희 인문대학장의 특강과 더불어 제2기 수료생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수료생들은 인문학 최고과정을 통하여 삶을 바라보는 폭이 넓어지고 자기성찰의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학교 측에 고마움을 전했다.



家喪貨閉 보이지 않는 동으로 집을 잃는다



이창희  
고고학과

지난 학기 三韓의 교류에 대해 강의하던 중 실제로 한반도 남부에서 출토된 화폐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다. 명도전·반량전·오수전·화전 등 중국의 화폐가 그것인데, 이는 물물교환의 매개 수단은 될 수 있을 지언정 안정화된 가치 척도가 되지 못해 유통이 되지 못했다. 그리하여 실질적인 화폐의 기능은 없다하였다. 당시 무덤에서 출토된 차이나 코인은 삼한 사람들 사이에서 유통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威信財에 불과했다. 어릴 적 외국에 출장갔다 온 아버지에게 받은 외국돈을 자랑하던 친구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 때의 외국돈이란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 우리 집은 이 정도라는 일종의 위신재 기능인 셈이다. 현재의 명품기방과 마찬가지로. 고고유물에는 이러한 성격의 유물이 더러 있다.

却說, 비트코인은 일천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이라는 미명하에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앞으로도 비트코인은 현재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처럼 가까운 미래에 매우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정착할지도 모른다.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세계 공통의 화폐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장점이 많은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비트코인은 창시자인 나카모토 사토시의 기대와는 달리 투기(『표준국어대사전』: ①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 함. ②시세 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기 위하여 하는 매매 거래)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온 나라가 비트코인으로 떠들썩한 지금, 단언컨대 인간의 욕망이 수반된 투기라 할 수 있다. 당연 투기는 악행이 아니다. 허나 실명제에 불복하면 더 이상 비트코인을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실명 확인을 않는다. 어디선가 돈세탁의 꿈수로 사용되고 있던 말이다. 사지 않으면 폭락, 악순환은 계속된다.

비트코인이라는 가상의 화폐는 본질이 없어 가치를 매길 수 없기에 그 척도가 되지 못하는 이상 화폐가 될 수 없다. 주식처럼 가치 예상도 불가능하다. 비트코인이 보통의 화폐와 다른 제일은 중앙 통제 없는 P2P(peer-to-peer)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점, 즉 중앙은행의 통제가 없는 것이다. 2014년 당시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 일본의 마운트곡스가 해킹으로 파산한지 4년도 채 되지 않은 몇 일전 또 다른 대형 거래소 코인체크가 해킹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근자의 비트코인 논쟁에서 전문가들은 늘 일본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외쳐대지 않았던가. 불공정 제거를 위해 중앙(정부든 은행 이든)에서 통제와 감시·감독이 필요하다 한다. 중앙의 통제가 배제된 채 태어난 비트코인을 중앙에서 통제하러니, 이 무슨 역설인가.

역사 복원에 공헌하고 있는 고고학은 물질자료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에 비트코인 같은 가상의 화폐(?)는 우리의 탐구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비트코인 얘기를 꺼낸 것은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통제되지 않은 화폐의 폐단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카지노의 룰렛도 확률이 있다. 가치 없는 가상의 화폐, 차트 없는 주식, 전망이 불가능한 福不福이다. 향간에 떠도는 비트코인의 이미지가 겹침으로 보이는 건 나뿐일까.



명예퇴직 교수

● 국어국문학과 조태흠 교수



조태흠 교수는 부산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1985년 석사 학위를, 1989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 3월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에 부임한 이후 28년 간 본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였다. 재직하는 동안 대학원장, 입학관리본부장, 학생지원처장, 국어국문학과장 등의 주요

보직을 역임하여 본교 대학원의 학문발전과 우수한 입학생 유치, 그리고 학생들의 복지 개선에 기여하였고, 부산대학교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여 국어국문학과의 발전 뿐만 아니라 부산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다. 또한, 학자로서 본연의 임무라 할 수 있는 연구 분야에서도 많은 업적을 일구어 냈다. 『한국문학개론』, 『한국고전문학강의』, 『한국의 문학사상』, 『한국의 민속문화와 전통문화』 등의 단행본 출판에 참여하였고, 『18,9세기 훈민시조의 변모와 그 의미』, 『18-9세기 장시조 연행의 기반과 그 문학적 의미』, 『조선 후기 가객의 유형과 그 문학적 의미』, 『18세기 시조연행 양상과 시조문학』 등의 논문을 발표하여 한국 고전문학 시조 연구에서 왕성한 학술활동으로 학자로서의 명성을 떨쳤다. 후진 양성에도 힘을 기울여 현재 학계 및 교육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수한 석·박사를 배출하였으며, 이외에도 한국문화회화장 등을 역임하여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크게 노력한 바 있다.

신임교수 부임

●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신우선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국립대 만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015년에 동대학원에서 『韓國漢字音歷史層次研究』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中央研究院 語言學研究所에서 연구하였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논문으로는 「以의 意味 派生 및 文化化」, 「固有語 속에 混在하는 漢字語 考察 — 本字 研究法 및 그 適用을 中心으로」, 「論粵語句末助詞「嘍」的用法及其虛化過程」 등이 있다.

●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김유곤



성균관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을 전공하였고 같은 학과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2015년에 미국 인디애나 주에 위치한 노터데임 대학교 (University of Notre Dame)에서 20세기 미국시와 비교문학 연구로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성균관대학교 인문학 연구원에서 영미시를 초국가적 시각과 상호학

제적 방법론으로 탐구하는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Arizona Quarterly』, 『현대영미시연구』, 『새한영어영문학』 등 국내외 학술지에 연구논문을 발표했고, 최근에는 미국 아방가르드 시인들과 동양 철학의 연관성을 새롭게 조망하는 단독 저서 출판을 준비하고 있다.



## 학과 · 연구소 소식

### ● 서울대학교 김장석 교수 초청강연

현재 고고학 연구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의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김장석 교수를 초청하여 '방사성탄소연대의 고고학적 활용'의 제목으로 강의를 개최하였다. 학부생 및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학계 연구자들도 참석하여 의미 있는 토론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이후 본과 학생들과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학생들의 교류도 이루어져 앞으로의 학술적 교류가 기대된다.

### 국어국문학과

#### ● 제19회 전국 고교생 효원문예백일장 개최

9월 30일 부산 대학교 주최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주관으로 제19회 전국 고교생 효원문예백일장을 개최하였다. 전국 140개 고교 439명(산문부 249명, 운문부 190명)의 고등학생이 참가한 이번 백일장은 엄격한 예심과 본심을 거쳐 장원 1명, 차상 2명, 차방 3명, 참방 20명이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이번 백일장의 글제는 '가위(운문)과 신발(산문)'이었으며, 장원은 영파여자고등학교 2학년 송해수 학생이 수상하였다. 이번 백일장에는 소설가 김연수의 초청 강연으로 작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 노어노문학과

#### ● 노어노문학과 러시아어 말하기 대회

11월 17일 노어노문학과 개설 이래 최초로 러시아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러시아와 관련된 자유 주제로 총 19명의 학생들이 출전하여 실력에 따라 1, 2, 3등 수상을 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관객으로 참여하였으며, 출전자들은 자신의 러시아어 실력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독어독문학과

#### ● 학술대회 개최

한국독일어문학회 및 한국독일언어문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추계 연합학술대회(2017.10.20~21)가 인문관에서 개최되었다. 전국의 독어독문학자들은 「제4차 산업 혁명과 인간」이라는 주제 하에, 최근의 독일어권과 영미권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동향을 고찰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다.



### ● 김종수 교수 특강

독어독문학과 김종수 교수는 11월 22일 인덕관 소회의실에서 K-MOOC 강좌 <언어, 세상의 지문> 온라인 개설과 관련하여 "언어의 만남, 피진어와 크레올어 이야기"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대학생들과 일반인과의 소통의 장이 되었다.



### ● 독일어 말하기 대회 개최

11월 24일 독일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여, 총 17개팀 34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서 독일어 회화능력을 과시하였다.



### 불어불문학과

#### ● 2017 불문인의 밤 개최

11월 17일 부산대 앞 '스테이지 온 더 문'에서 불문인의 밤을 개최하여 교수 및 학생들 간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 ● 2016년 공쿠르 상 수상작가, 레일라 슬리마니와의 만남

11월 17일 새벽별 도서관 오디토리움에서 '레이라 슬리마니' 작가와 독자의 만남을 통해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 ● 2017 프랑스어 말하기대회 개최

11월 17일 프랑스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총 4개팀이 참가하여 각자의 역량을 보여주었으며, 대회를 참관한 40여명의 학생들에게도 좋은 동기부여가 되었다.



사학과

● 추계학년답사

1학년 지도교수(서영건 교수님)의 인솔 아래, 1학년 학생들은 김해지역으로 9월 22일부터 23일간 답사를 떠났다. 김해지역의 여러 유적들과 국립박물관을 답사하여, 해당지역의 올바른 역사를 이해하고, 다양한 역사상을 체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답사를 통해 사학과 학생들은 견문을 넓히고 앞으로 학과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 새로운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



● 전문가초청강연회

11월 29일 중국 인민대학 출신의 김지영 박사님을 초청하여, '시진핑의 中國夢과 一帶一路'라는 주제를 통해, 현재 중국의 현안문제를 분석하고 시진핑의 정책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강연회를 가졌다.



● 사학과 연합 학술제

학부생 학술연구회인 풀빛(한국사연구회), 그노시스(서양사연구회), 동휘(동양사연구회), 플레임(여성사연구회)에서 '민중운동'을 주제로 각각의 연구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11월 30일 가졌다.



● 동계답사

2018년 1월 24일 학과 교수, 시간강사, 대학원, 학부생 등 학과의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2017학년도 동계답사를 다녀왔다. 고성, 통영 일대의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여러 유적들을 답사하며, 해당 지역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영어영문학과

● 동문장학금 수여식

지난 8월 24일 영어영문학과 동문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매학기 영어영문학과는 동문회 발전기금 출연으로 학부 각 학년의 성적우수자를 선정하여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 새벽소리 여름 정기 워크샵

새벽소리는 지난 9월 9일 여름 정기 워크샵 공연을 하였다. 영어영문학과 대표 동아리인 새벽소리는 매년 학과 및 인문대와 부산대학교 학우 전체를 대상으로 영문과 새내기 맞이 공연, 여름 정기 워크샵, 영문인의 밤 공연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드라마학회 여름 정기공연

영어영문학과 소속 학부 연극동아리인 드라마학회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 까지 3일간 레몬트리 소극장에서 뮤지컬 'CHICAGO'로 여름 정기공연을 개최하였다. 영어영문학과 드라마학회는 30여년의 전통을 가진 인문대학 유일의 학부연극동아리로서 기획, 연출, 무대 장치 등 공연제반사항을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특징이다.

● PNU 영어말하기 대회

영어영문학과가 주최하고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이 후원하는 제1회 PNU 영어말하기 대회가 11월 24일 부산대 통합기계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80여 명의 재학생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선 개인 부문에서 국제학부 김민진 학생이 대상을, 2인 팀 부문에서 국제학부 변정윤, 기계공학부 김수암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언어정보학과

● 대선주조 기업탐방

11월 24일에 대선주조 기장공장으로 기업탐방을 다녀왔다. 학생들은 대선주조 견학프로그램을 통해 대선주조의 역사와 출시 제품, 제조 과정, 특허기술 등을 직접 체험하였고 현장 실무자를 통해 다양한 취업정보를 얻어 진로를 탐색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 취업특강 및 동문회

12월 2일 문창서관 1층 인터넷 라운지에서 취업특강을 실시하였다. 현지혜(우리은행), 권세혁(교보생명), 박동훈(한화생명), 신상필(퍼시스), 신수홍(LG유플러스) 졸업생은 취업을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는가를 학부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취업특강 이후 동문회에서 선후배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 산장학교

2018년 1월 13일 송정으로 1박 2일간의 산장학교를 다녀왔다. 20여명의 재학생과 졸업생이 참여한 산장학교에서 학생들은 친목을 도모하고 추억을 만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일어일문학과

### ◉ 학부 정기 답사

일어일문학과에서는 10월 26일 포항을 방문하여 장기음성, 구룡포 일본 가옥거리, 일본 근대 역사관을 둘러보았다. 일본인이 포항 구룡포 지역에서 거주하게 된 역사적·지리적 배경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역사 및 일본과의 관계사 등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



## 중어중문학과

◉ 2017학년도 교직이수예정자를 위한 선배 초청 특강 개최  
10월 20일 강익중(9학번, 진주 동명고 교사)졸업생을 초청하여 '어쩌다 교사'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개최하였다. 교직을 이수하고 있는 학부생과 교육대학원생, 그리고 교직이수를 희망하는 17학번 학생들이 참석하여 중국어교육의 실제와 중국어교육의 방향에 대해 질문의 시간을 가졌다.



### ◉ ACE+ 중어중문학과 기업탐방

ACE+ 프로그램의 일환인 학부생 현장실습 및 기업탐방 프로그램에 20여 명의 학부생들이 참여하여 2017년 11월 3일 오전 오후 각각 울산 현대중공업과 부산신항만공사를 탐방하였다. 이번 기업 탐방을 통해 학생들은 현재 중공업의 상황 변화, 부산신항만공사의 전망과 물류 사업의 발전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었다.



### ◉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11월 29일, 박수영(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중국도!'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개최하였다.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은 이 특강을 통해 중국의 위상과 역할 속에서의 비전을 정립할 수 있었다.



## ◉ 창업 특강 개최

12월 1일, 김영은(01학번, ㈜영인터내셔널 대표) 졸업생을 초청하여 창업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 특강은 중어중문학과 선·후배교류의 장이 되었을 뿐 아니라, 후배들에게 창업에 대한 도전정신과 용기를 심어준 뜻 깊은 자리가 되어 주었다.



## 한문학과

### ◉ 제29회 추계학술답사

매년 가을 전국을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학술답사를 개최해오고 있는 한문학과는 올 10월 25~27일에는 경북의 유적지를 다녀왔다. 답사의 주제는 '29번째 뿌리찾기 - 조선 선비의 공부와 사름 - 고민과 꿈의 그 길을 따라 나서다'였으며, 첫날에 대상지역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다.



### ◉ 제6회 해외학자초청세미나



9월 28일에 도널드 스테전 (Donald Sturgeon)을 초청하여 오전, 오후 2회에 걸쳐 '신구(新舊)의 조우 - 인문학에서 디지털의 활용', '디지털 방법론으로 풀이한 중국 문화'라는 제목으로 해외학자초청세미나를 열었다.

### ◉ 현장실습: 한문학 전공역량 강화 사업

한문학과 전문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2017년 12월 22일에 한국고전번역원 밀양분원으로 현장실습을 다녀왔다. 이번 현장실습은 전문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 및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본인의 진로에 대한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



철학과

● 추계학술답사

9월 24~25일 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의 배흘림기둥의 미학'이라는 주제로 경상북도 영주, 충청북도 단양 일대 학술탐방을 다녀왔다. 부석사 무량수전의 배흘림기둥 속에 반영된 우리 조상의 탁월한 미적 통찰과 단양 고수동굴 속 자연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아름다움과 웅장미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현대 문명의 단절적, 소비적인 미적 가치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 SAM분야 2017년도 철학과 학부·대학원 연계 Colloquium

12월 12일 개최된 본 콜로키움은 철학과에 들어선 순간, 결코 건너 뛸 수 없는 중요한 칸트 철학을 개관하였으며, 질의 응답을 통해서 보다 쉽게 칸트 철학을 이해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강연자 박종식 선생님은 본교 철학과 박사 출신이며, 대학교 및 문화공간 빈자리 등에서 활발한 강연활동을 하고 계시는 칸트 철학 전문가이다.

● ACE+ 2017년도 철학과 기업탐방 in Bexco

12월 1일 벅스코 기업 현장에서 철학과 선배를 직접 만나 해당 기업의 전망과 비전에 대한 설명회와 후배를 위한 작은 취업 특강 및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써, 학생 자신의 현실적인 역량 강화(외국어역량, 해외경험 등)를 통해서 성공적인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좋은 기회였으며, 벅스코 주요 취업박람회에도 참여함으로써 벅스코 기업 현장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공동주최 초청강연회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

- 일시 : 2017. 9. 21.(목) 16:30~18:30
- 장소: 부산대학교 사회관 302호
- 주최: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 발표자: 김행범(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공동주최 학술세미나

「고려시대 대중국 외교현안과 대응방식

- 일시: 2017. 9. 22.(금) 13:30~16:00
- 장소: 부산대학교 인덕관 대회의실
- 주최: 한국중세사학회
- 공동주관: 부산대학교 사학과,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후원: 동북아역사재단
- 발표자: 이승민(가톨릭대학교) 외 4명

● 공동주관 학술회의



1960~70년대 개인일기를 통해 본 기업과 노동자

- 일시: 2017. 9. 29(수) 13:30~17:30
- 장소: 부산대학교 인덕관 대회의실
- 주관: 효원사학회,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주최: 부산대학교 역사교육학과·사학과
- 후원: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발표자: 차철욱(부산대학교) 외 3명

● 공동주최 지역사 워크숍



도시 변두리 주민의 생활과 공동체 -부산과 서울의 경우

- 일시: 2017. 10. 19.(목), 20(금) 13:00~18:00
- 장소: 부산대학교 인덕관 대회의실
- 주최: 국사편찬위원회,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부산박물관
- 발표자: 오미일(부산대학교) 외 3명

● 공동주최 시민강좌



[2017년 3기] 세상을 여는 아름다운 인문학

- 일시: 2017. 10. 12(목) ~ 11. 7(화) 19:00~21:00
- 장소: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배움 4실(3층)
- 주최: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발표자: 이명수(부산대학교) 외 7명

신간소개



허생의 섬, 연암의 아나키즘

강명관 | Humanist |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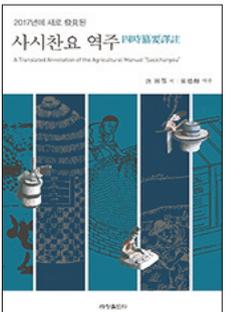
다른 학자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색다른 주제를 연구하고, 학계의 정설과는 다른 주장을 선보이기로 유명한 저자는 『허생의 섬, 연암의 아나키즘』에서 《허생》이 실학과 상업주의, 자본주의적 근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파격적인 답을 내놓는다. 실제로 연암은 《북학의》 서문 등에서 특별히 상업을 장려하지는 주장이 아닌, 물화의 유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수준의 주장을 했고, 연암의 아들 박종채가 쓴 《과정록》에 따르면 연암은 상인을 '천한 직업'이라고 이야기했다. 저자는 이처럼 텍스트 안팎에서 다양한 근거들을 찾아내어 《허생》에서 상업주의를 찾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며 실학파·북학파를 지우고 동시대의 콘텍스트 속에서 진짜 허생을 읽어내고자 한다. 18세기 조선의 현실, 연암의 방대한 사유, 《열화일기》 집필 배경 등을 조망하며 《허생》의 진정한 의미는 《허생》이 실린 《옥감야화》의 맥락 속에서 오롯이 드러나기에 《옥감야화》 전체를 강독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살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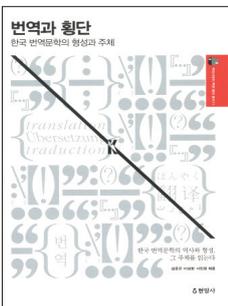
**근대 여성문학의 탄생과 미디어의 교통**  
김경연 | 소명출판 | 2017  
『근대 여성문학의 탄생과 미디어의 교통』은 《여자계》, 《신여자》, 《신여성》, 《신가정》 등 1920~30년대 여성매체들과 교통하면서 여성문학이 형성되는 역동적인 과정을 추적하며, 이를 통해 근대문학 제도에 기입된 젠더를 가시화하고, 아울러 작가·작품 중심의 여성문학 연구가 누락한 지점들을 조명함으로써 보다 온전한 근대 여성문학사의 복원을 시도한다. 여성들이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서 주어진 젠더/여성이 되라는 미디어의 명령을 균열하는 징후를 독해하며, 문학의 가장자리에서 문학의 경계를 동요하는 글쓰기의 역능을 잠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노폰 담론, 중국문학**  
왕더웨이 지음, 김혜준 옮김 | 학고방 | 2017  
이 책은 (1)청말 소설이 보여주는 '역압된 현대성', (2)혁명·계몽 담론과 대화로서의 '서정 담론', (3) '포스트 유민 글쓰기' 및 디아스포라 정치·시학, (4) 시노폰 연구라는 '시노폰 바람'의 방향 등 네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은이 왕더웨이는 청말에서 당대까지 서로 다른 역사시기와 문학 텍스트를 넘나들며 현대중국문학이 전통의 내부와 외부, 곡절과 변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목소리와 스타일, 그리고 이념들이 만들어낸 총합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청말 소설의 4대 장르인 의협·공안소설, 건학소설, 공상과학·기담소설이 욕망, 정의, 가치, 진리(지식)라는 현대성 담론에 각각 대응한 것이며, 서정(분노를 풀고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혁명과 계몽과 상호 연동 관계 속에서 당대 문화정치와 서정 담론이 관련이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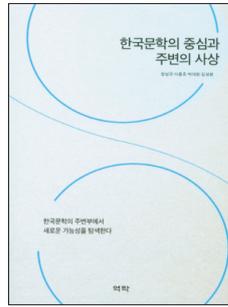


**사시찬요 역주**  
한악 저, 최덕경 역 | 세창출판사 | 2017  
경북 예천에서 발굴된 조선 태종 때의 동판 《계미자본》을 저본으로 삼아, 최근까지 발견된 『사시찬요』의 《중각본(重刻本)》과 《필사본(筆寫本)》 등 3종류를 모두 소개한 책이다. 『사시찬요』는 중국 당대(唐代) 한악(韓鄂, 840~923)이 농민의 생활과 민속을 월령(月令) 형식으로 기술한 농서이다. 특히 이번 역주서에서 저본으로 삼은 《계미자본》은 조선 태종 때인 1403~1420년에 인쇄된 희귀본으로, 이미 1590년 조선에서 중각대 1961년 일본에서 출판된 《중각본》 『사시찬요』보다 180여 년이 앞서 있는 것을 이번 역주서에서 처음으로 세상에 소개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역주서에는 몇 년 전 새롭게 발견된 《필사본》 『사시찬요』도 함께 소개했는데, 이 《필사본》은 누가 언제 쓴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사시찬요서(四時纂要序)』부터 12월까지의 내용이 온전히 기록돼 있다.



**번역과 횡단**  
김용규, 이상현, 이민정 역음 | 현암사 | 2017  
이 책은 근대 한국의 번역문학을 깊이 있게 성찰한 전문가 16인이 참여한 공저이다. 이 책에서 번역문학은 한국 근대 문학 등장 이전의 前史 혹은 원본의 아우라를 전해주지 못하는 모사품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의 근대(문학) 형성에 결정적 역할과 계기를 제공해준 실천이자 역사로 묘사된다. 이 책의 저자들은

원본과 모사, 창조와 모방, 직역과 의역 등과 같이 우열을 전제하는 번역론에서 벗어나 번역문학 연구를 하나의 체계로서, 하나의 장으로서, 그리고 언어 횡단적 문화 현상으로 고찰하고자 했다.



**한국문학의 중심과 주변의 사상**  
장성규, 이종호, 박대현, 김성환 | 역락 | 2017  
『한국문학의 중심과 주변의 사상』은 한국문학의 논의가 지금까지 점유해 온 중심의 논리를 새롭게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네 명의 필자는 식민지후반에서 70년대에 이르는 한국문학사의 핵심적 시공간에서 무엇이 '문학성'의 중심의 논리로 작용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그것이 가진 문제점과 이를 넘어서기 위한 사상적 탐색 방향을 제안한다. 예컨대, 식민지 후기 한국문학은 암흑기라는 말로 설명되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주변부 문학의 기획을 통해 새로운 문학의 지평, 즉 소수자 문학으로서의 조선 근대 문학을 꿈꾸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묻는다. 이와 유사하게 전후 문학, 그리고 두 혁명을 거친 60년대 이후 한국문학을 지배하는 힘을 크기와 방향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일본을 전면에 내세운 세계질서와 사상의 이데올로기의 본질을 파헤침으로써 문학연구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번역이란 무엇인가**  
하야카와 아쓰코 저, 김성환 옮김, 하시모토 지호 옮김 | 현암사 | 2017  
『번역이란 무엇인가』는 이 책은 탈식민주의의 관점에서 번역 이론을 개괄하고 있다. 이 책의 기본적인 관점은 번역이 세계를 인식하는 과정에 매우 유용한 사고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번역을 통해 우리는 역사를 통해 접촉한 언어적, 문화적 타자와 대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지은이 하야카와 아쓰코 교수는 번역을 매우 폭넓은 지평에서 재조명한다. 그는 언어의 경계에서 타자를 초래하는 번역의 가능성과 함께 타자를 '타자'로 인식했을 때 번역을 가로막고 있는 번역의 불가능성이 어떤 의미에서는 번역 이론의 근본적인 아포리아라고 말한다. 이 책은 언어적 타자와의 관계성을 찾는 것을 번역의 본질로 설정하고 이를 중심축으로 삼아 인류의 사상과 문화에 부여된 21세기적 과제를 탐색한다. 즉, 모더니즘 이후의 언어, 문화 그리고 역사를 둘러싼 사상이 번역론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읽어낸다. 그 대표 사례가 홀로코스트 담론이다. 그리고 홀로코스트 논의에서 미래를 지향적 세계문학이라는 큰 명제의 입구로 우리를 인도한다.



**유몽천자연구**  
이상현, 임상석, 이준환 | 역락 | 2017  
이 책은 한국개신교선교사 게일(James Scarth Gale)과 이창직이 경신학교와 정신여학교의 교과서로 편찬한 『유몽천자』에 관한 연구서이다. 『유몽천자』를 통해서, 개신교 선교사의 국한문제 기획의 역사와 그 현장을 조망하고자 한 저술이다.